

## 흙주거의 거주특성과 주거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idential Character and Consciousness of Housing Environment in Earth Housing

정주성\*  
Jeong, Joo-Seong

김정규\*\*  
Kim, Jeong-Gyu

오양기\*\*\*  
Oh, Yang-Ki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sidential characters and consciousness about housing environment concerned with earth housing, and to suggest basic data reflectible on the planning of earth housing. Residential characters and consciousness are investigated with the people lived in forty seven earth housings located in nationwide scale throug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a reason of health like sick house syndrome, residential environments such as ventilation and lighting, site environment such as neighbor and greenfield are very influential elements to the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Meanwhile, approximation of residential area, the connection with public facilities including medical service, educational and commercial conditions, additionally, preparation of disaster and crime prevention in a viewpoint of safety are pointed out as relatively weak ones. It means that earth housing is not systematically fixed as a residential site because it is personally progressed by small number of peoples having different reasons. For the improvement of systematic housing environment, development and proposition of various model are needed on earth housing and its site.

Keywords : Earth Housing, Residential Character, Housing Environment, Residential Consciousness

주요어 : 흙주거, 거주특성, 주거환경, 거주 의식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집증후군의 원인인자가 건축재료로 부터 비롯된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 원인인자를 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흙재료에 의한 주거는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 건축의 대안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주거환경의 쟁점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거건축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은 상당부분 연구의 진전이 의의를 갖는다 볼 수 있겠으나 거주인의 의식에 중점을 둔 연구는 단편적인 내용에 그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정회원(주저자),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전국에 분포하는 흙주거를 대상으로 거주자의 거주특성을 살펴보고, 생활속에 나타나는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흙주거 계획시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흙주거”는 ‘벽체의 구축에 흙이 주된 재료로 사용된 주거’를 의미하며 ‘목재 등의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벽체를 구축하는 경우’를 포괄하지 만 ‘다른 재료로 구축된 벽체 위에 흙재료의 몰탈이나 코팅 등을 부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연구대상인 흙주거의 시간적 범위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1) 황혜주, 흙건축의 동향과 전망, 건축, 대한건축학회, 2003. 5, 황혜주, 황토재료가 동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9 n.7, 2003. 7, 차정만, 지속가능한 건축재료의 개발과 흙, 건축 v.47 n.12, 2003.12, 김병선, 국내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발전과정 및 사례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 친환경 건축인증 워크샵, 2005. 2

2) 유형규 외2, 실내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7호, 2005. 7 pp. 141-148, 박현구 외2,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고려한 건축재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설정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권 8호, 2005. 8. pp. 97-104.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로 한정하였다. 현대화된 흙주거는 재료 및 구법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지역이나 특정용도에 편중되어 있고, 사업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연구대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 연구는 흙주거 거주자의 거주특성을 밝히고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진단한 것으로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설이용 패턴을 조사하였고, 이들 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흙주거에 대한 주거환경 의식을 측정하였다. 설문은 거주자들의 거주특성을 파악하고, 거주자의 정주의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설문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패키지가 이용되었다.

## II. 조사 개요

### 1.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대상은 흙재료를 주된 건축재료로 이용한 현대화된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47개의 대상주거를 선정하였다. 현대화된 흙주거의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와 일반인의 휴양과 숙박을 위한 펜션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주 중심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구명이 1차적 목표가 되기때문에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펜션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는 2005년 7월 부터 2005년 9월까지 4차에 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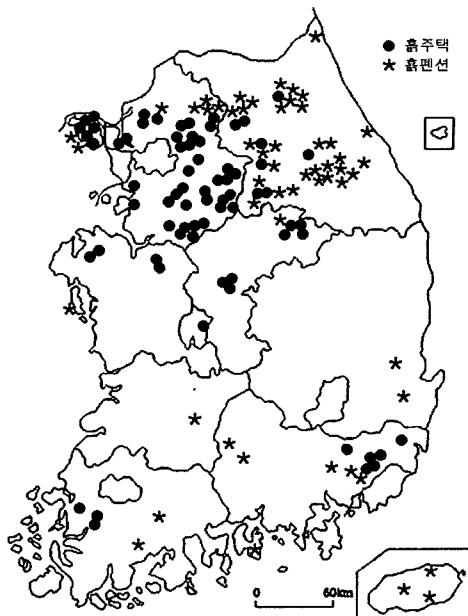


그림 1. 흙집의 전국적 분포<sup>3)</sup>

3) 단행본, 잡지, 인터넷 등 문헌조사에서 수집된 주거용 74개, 펜션 54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임.

표 1. 방문조사 대상 흙주거의 지역적 분포

지역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조사대상	6	1	19	4	7	3	-	3	-	4	47

이루어졌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흙주거에 대한 건축적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흙주거 47개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흙주거의 이용현황 조사는 47개의 흙주거 거주자를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개별면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거주자들의 특성파악과 거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행해졌다. 설문은 개별면담에 의한 간접지입식 직접설문 방식이 채택되었고, 47부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조사항목은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참조하여 거주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동거인 수, 소득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거주기간, 소유형태, 이사경험, 이전 거주주거 등 거주이력에 대한 사항 그리고 흙주거 정착동기, 흙주거 정주요인, 흙주거 정주 지속 의지 등에 대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III. 조사대상의 거주특성 분석

### 1. 조사대상의 가구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직업, 자녀수, 거주가족수,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을 파악하였다.

<표 2>는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93.6%, 여성이 6.4%로 대부분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은 40대가 27.6%, 50대가 29.8%, 60대가 25.6%로서 고른 분포를 보이며, 가구주의 직업은 퇴직자 25.5%, 농업 23.4%, 자영업 17% 공무원 10.6% 순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주의 가족수는 2인이 48.9%, 3인이 19.1%, 1인이 17%, 4인이 8.5%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53.1%, 비동거의 경우 42.5%에 이르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1.2%, 비동거의 경우 40.4%로 파악되었고, 현재 주거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수는 2인이 34.0%, 4인이 23.4%, 5인이 17%, 3인이 1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하가 46.8%, 200-300만원이 25.5%, 300-400만원이 10.6%로 파악되었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대학졸 31.9%, 고졸 27.6%, 대학원졸 17% 순으로 파악되었다.

### 2.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의 소유형태, 거주기간, 최근 10년 이내 이사경험, 이전 거주주거 유형, 이전 거주지 유형, 이전 주거의 소유형태 등을 파악하였다.

<표 3>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현 주거의 소유형태는 자가 95.7%, 독채 전세 4.3%로

표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가구주 기준)

구 분	특 성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44	93.6
	여	3	6.4
연 령	30대이하	3	6.4
	40대	13	27.6
	50대	14	29.8
	60대	12	25.6
	70대이상	5	10.6
직업	농업	11	23.4
	퇴직자	12	25.5
	교사/공무원	5	10.6
	자영업	8	17.0
	건설관련업	3	6.4
	회사원	3	6.4
	기타	5	10.6
자녀수	1인	8	17.0
	2인	23	48.9
	3인	9	19.1
	4인	4	8.5
	5인	1	2.1
	없음	1	2.1
거주가족수	1인	4	8.5
	2인	16	34.0
	3인	7	14.9
	4인	11	23.4
	5인	8	17.0
	6인	1	2.1
자녀동거여부	동거	25	53.1
	비동거	20	42.5
	없음	1	2.1
	무응답	1	2.1
부모동거여부	동거	10	21.2
	비동거	19	40.4
	없음	17	36.1
	무응답	1	2.1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22	46.8
	200-300만원	12	25.5
	300-400만원	5	10.6
	500만원 이상	5	10.6
	무응답	3	6.4
교육수준	중졸이하	6	12.7
	고졸	13	27.6
	전문대졸	4	8.5
	대졸	15	31.9
	대학원졸	8	17.0
	무응답	1	2.1

대부분 자가의 소유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현 흙주거에서 거주기간은 2-3년 31.5%, 4-5년 25.5%, 1년이하 19.1%로 5년이내의 거주기간이 전체의 약7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최근 10년 이내 이사경험은 1회 61.7%, 2-3회 25.5%, 없음 8.5%로 이사횟수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이전 거주지에 대한 거주주거의 유형은 단독주택 34%, 공동주택(6-16층) 23.4%, 공동주택(17-24층) 12.8%, 공동주택(5층이하) 12.8%로 파악되었고, 이전 거주지의 입지유형은 도시중심지역 55.3%, 농어촌소재지 25.5%, 도시외곽지역 14.9%

표 3.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특성

구 분	특 성	빈 도	백분율(%)
소유형태	자가	45	95.7
	독채 전세	2	4.3
	일부 전세	0	0
	독채 월세	0	0
	일부 월세	0	0
현 주거 거주기간	1년이하	9	19.1
	2-3년	15	31.9
	4-5년	12	25.5
	6-7년	5	10.6
	8-9년	5	10.6
최근 이사경험 (10년이내)	없음	4	8.5
	1회	29	61.7
	2-3회	12	25.5
	4-5회	1	2.1
	6회이상	1	2.1
이전 거주주거	단독주택	16	34.0
	흙주거	4	8.5
	공동주택(5층이하)	6	12.8
	공동주택(6-16층)	11	23.4
	공동주택(17-24층)	6	12.8
	공동주택(25층이상)	2	4.3
	기타	2	4.3
이전 거주지 유형	도시중심지역	26	55.3
	도시외곽지역	7	14.9
	교외지역	1	2.1
	농어촌 소재지	12	25.5
	농어촌 외곽	0	0
	기타	1	2.1
이전 주거 소유형태	자가	40	85.1
	독채 전세	4	8.5
	일부 전세	1	2.1
	독채 월세	1	2.1
	일부 월세	0	0
	기타	1	2.1

순으로, 이전 주거의 소유형태는 자가 85.1%, 독채 전세 8.5%로 자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IV. 조사대상의 주거환경 의식 분석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흙주거에 정착하게 된 동기, 흙주거에 대한 정주요인, 타 거주지로의 이전의지, 타 거주지로 이전시 희망하는 주거유형 등을 파악하였다. <표 4>는 조사대상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설문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 1. 정착동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흙주거로 이주하게된 정착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거주지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진단하였다. <그림 2>는 흙주거로의 이전동기에 대한 응답자들의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단지분위기등 주변환경, 새 집중후군 등 건강상의 이유로, 채광, 통풍, 환기 등 거주환경때문에, 방의 수나 크기가 작아서, 유지관리비용의 효율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중 단지분위기 등

표 4. 설문응답대상의 일반적 속성

구분	특성	빈도	백분율(%)
가구내 역할	가구주	28	59.6
	주부	15	31.9
	기타	4	8.5
성별	남	27	57.4
	여	20	42.6
연령	30대이하	3	6.4
	40대	13	27.7
	50대	15	31.9
	60대	11	23.4
	70대이상	5	10.6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22	46.8
	200-300만원	12	25.5
	400-500만원	5	10.6
	500만원이상	6	12.7
	무응답	2	4.3
거주기간	1년이하	9	13.0
	2년-3년	14	30.4
	4년-5년	12	26.1
	6년이상	11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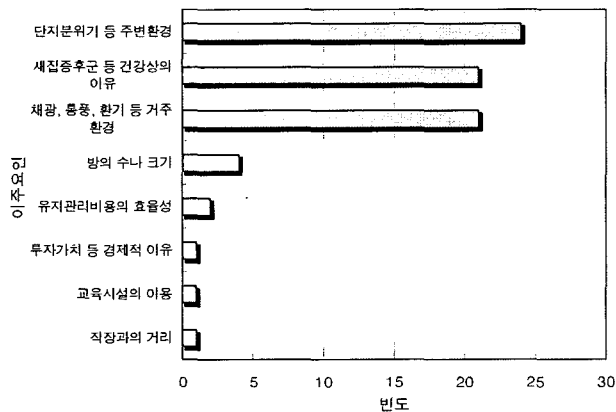


그림 2. 흡주거로의 이전동기

주변환경 문제와 새집증후군 등 건강상의 이유, 채광, 통풍, 환기 등 거주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흡주거로 이주하게된 정착동기중 가장 중요한 1순위에 해당하는 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새집증후군 등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주동기로 들고 있으며,단지분위기 등 주변환경 문제, 채광, 통풍, 환기 등 거주환경문제 등의 순으로 정착동기가 파악되었다.

2. 정주요인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정주요인을 파악하기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흡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정주요인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그림 4>는 응답자들의 흡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정주의사에 대한 견해로 채광, 통풍, 환기 등 거주환경에 대한 문제, 단지분위기 등 주변환경 문제, 새집증후군 등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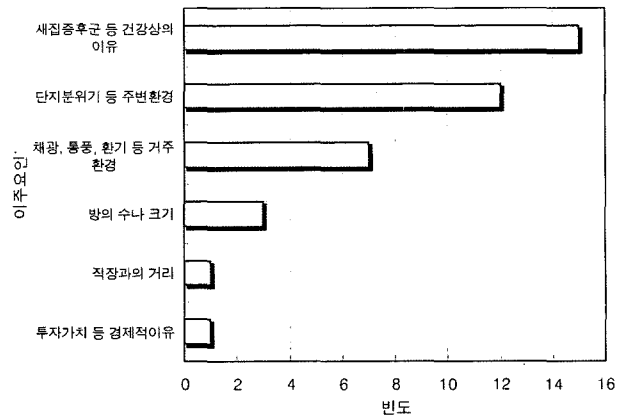


그림 3. 우선순위로 본 흡주거로의 이전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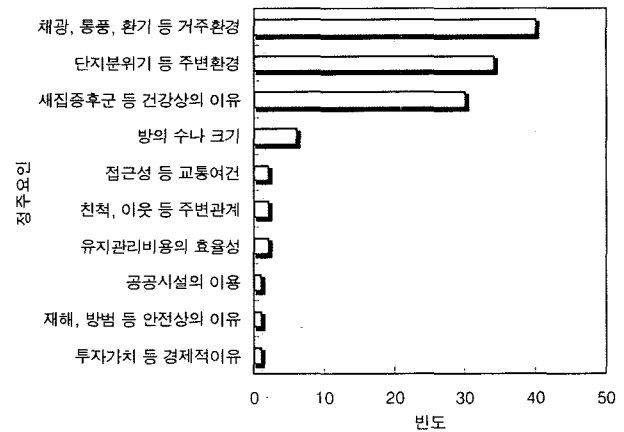


그림 4. 흡주거의 정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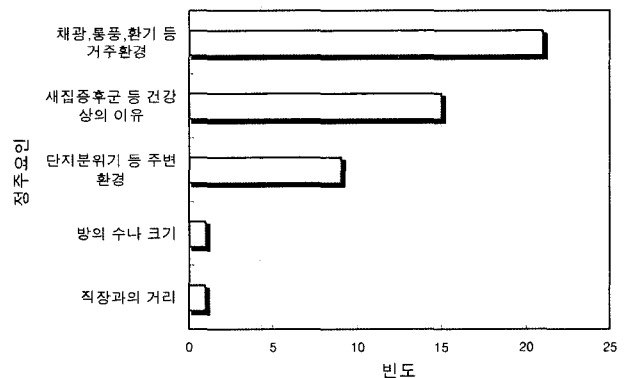


그림 5. 우선순위로 본 흡주거의 정주요인

반면 접근성 등 교통여건, 친척, 이웃 등 주변관계, 유지관리비용의 효율성, 공공시설의 이용, 재해, 방범 등 안전상의 이유, 투자가치 등 경제적 이유 등에 대한 문제들은 낮은 응답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는 흡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정주요인에 대한 의식중 가장 중요한 1순위에 해당하는 요인을 나타낸 것으로 채광, 통풍, 환기 등 거주환경 문제, 새집증후군 등 건강상의 문제, 단지분위기 등 주변환경 문제 순으로 지

속적 정주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타 거주지 이전 의지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타 거주지로의 이주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그림 6>은 현 거주지에서 타거주지로의 이전을 가정했을 때 이전요인을 나타낸 것으로 접근성 등 교통여건, 의료시설의 이용, 교육시설의 이용, 상업시설의 이용, 유지관리비용의 효율성, 공공시설의 이용, 직장과의 거리, 재해, 방범 등 안전상의 이유 등이 이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타 거주지로의 이전요인중 가장 중요한 1순위에 해당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그림 7>에 나타난 바와같이 접근성 및 교통여건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이용, 의료시설의 이용, 유지관리비용의 효율성 순으로 이전요인을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타 거주지로의 이전을 전제로 타 거주지로의 이전시 희망하는 주거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 <그림 8>에 제시한 바와같이 이전시 희망하는 주거의 유형으로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동주택(초고층), 공동주택(중층)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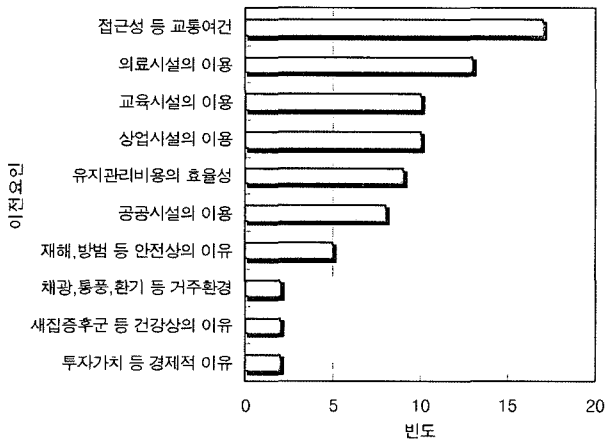


그림 6. 타 거주지로의 이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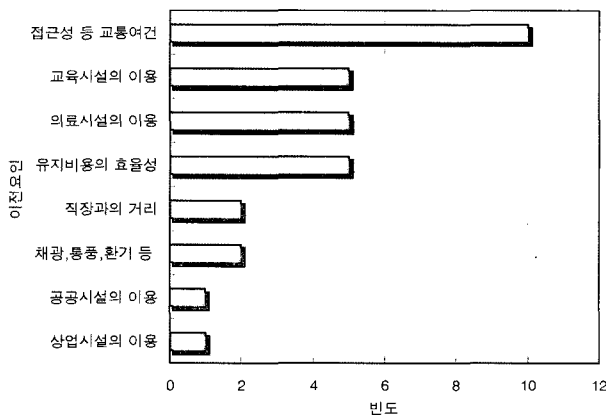


그림 7. 우선순위로 본 타 거주지로의 이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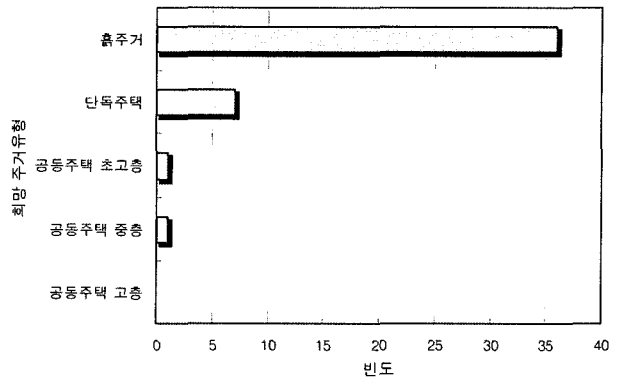


그림 8. 타 거주지로의 이전시 희망 주거유형

선호하는 경향이 파악되어 여전히 오피스텔에 대한 높은 선호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 의지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공간별 실 수 및 크기, 투자목적 등 경제적 측면, 유지관리의 효율성, 채광, 소음, 통풍 등 주거환경, 새집증후군 방지, 주거지에 대한 접근성, 공공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연계성,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 재해, 방범 등 안전성, 총체적 느낌에 대한 선호정도를 측정하였다. 선호정도의 측정은 5단계 리커트형 측정으로 매우만족과 매우불만 사이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단계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응답자의 개별속성은 가구주의 역할, 성별, 연령, 가구 소득수준, 거주기간으로 이들 속성에 대한 주거환경 요소들의 세부사항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표 5>는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응답자의 개별 속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 집단간 차이는 유의수준 0.05이상의 수준에서 검토했었다.

이들 속성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에 대한 일부의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반면 다수의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요소로 가구주의 역할에 대해 채광, 소음, 통풍 등 주거환경과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 재해, 방범 등 안전성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연령에 대해서는 새집증후군의 방지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과 재해, 방범 등 안전성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9>는 가구주의 역할에 대한 주거환경 요소들의 만족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가구주 보다 주부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경향이 파악되었다. 만족수준은 대부분 만족과 보통사이에 걸쳐 있으며 이중 채광, 소음, 통풍 등 주거환경과 새집증후군의 방지 항목에 대한 만족수준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표 5.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응답자 속성별 유의검증

SOURCE	거주환경 요소	df	F value	Pr>F
가구주 역할	사용공간별 실수 및 크기	2	1.544	0.225
	투자 등 경제적 측면	2	1.239	0.300
	유지관리의 효율성	2	2.402	0.102
	채광,소음,통풍 등 거주환경	2	3.171	0.052*
	새집증후군 방지	2	0.730	0.488
	주거지에 대한 접근성	2	1.331	0.275
	공공시설에 대한 연계	2	2.327	0.110
	상업시설에 대한 연계	2	2.337	0.108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여건	2	6.781	0.003***
	재해, 방법 등 안전성	2	5.659	0.006***
총체적 느낌	2	3.983	0.026**	
성별	사용공간별 실수 및 크기	1	0.230	0.634
	투자 등 경제적 측면	1	0.603	0.441
	유지관리의 효율성	1	1.011	0.320
	채광,소음,통풍 등 거주환경	1	0.215	0.645
	새집증후군 방지	1	0.020	0.889
	주거지에 대한 접근성	1	0.315	0.577
	공공시설에 대한 연계	1	0.736	0.395
	상업시설에 대한 연계	1	2.817	0.100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여건	1	3.098	0.085*
	재해, 방법 등 안전성	1	3.527	0.067*
총체적 느낌	1	1.540	0.221	
연령	사용공간별 실수 및 크기	4	1.879	0.132
	투자 등 경제적 측면	4	1.191	0.329
	유지관리의 효율성	4	2.055	0.104
	채광,소음,통풍 등 거주환경	4	0.660	0.623
	새집증후군 방지	4	2.805	0.038**
	주거지에 대한 접근성	4	0.492	0.741
	공공시설에 대한 연계	4	0.703	0.594
	상업시설에 대한 연계	4	1.166	0.339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여건	4	1.517	0.215
	재해, 방법 등 안전성	4	0.694	0.600
총체적 느낌	4	2.323	0.072*	
소득수준	사용공간별 실수 및 크기	4	0.624	0.648
	투자 등 경제적 측면	4	0.127	0.972
	유지관리의 효율성	4	0.165	0.955
	채광,소음,통풍 등 거주환경	4	0.746	0.566
	새집증후군 방지	4	0.819	0.520
	주거지에 대한 접근성	4	0.909	0.468
	공공시설에 대한 연계	4	0.517	0.724
	상업시설에 대한 연계	4	0.808	0.527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여건	4	1.017	0.410
	재해, 방법 등 안전성	4	0.626	0.646
총체적 느낌	4	0.618	0.652	
거주기간	사용공간별 실수 및 크기	3	0.716	0.548
	투자 등 경제적 측면	3	1.034	0.387
	유지관리의 효율성	3	0.185	0.906
	채광,소음,통풍 등 거주환경	3	0.365	0.779
	새집증후군 방지	3	1.078	0.369
	주거지에 대한 접근성	3	0.443	0.724
	공공시설에 대한 연계	3	0.879	0.460
	상업시설에 대한 연계	3	0.729	0.540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여건	3	2.920	0.045*
	재해, 방법 등 안전성	3	2.778	0.053*
총체적 느낌	3	0.106	0.956	

유의수준 \* p< 0.05 \*\* p< 0.01 \*\*\* p<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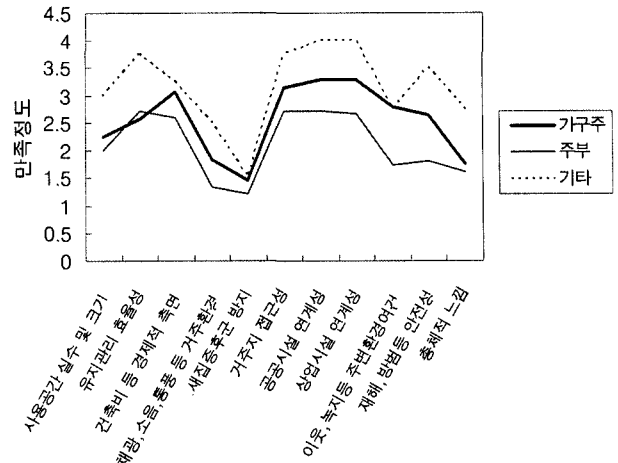


그림 9. 가구주 역할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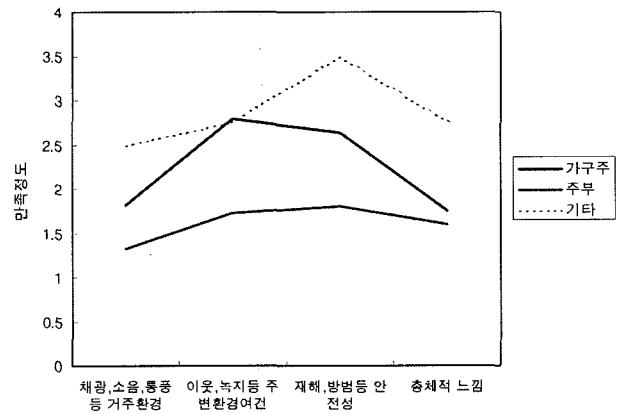


그림 10. 가구주 역할에 따른 만족도 비교

다. 또한 일부의 항목에서 가구주와 주부의 만족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이들 항목 중 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것으로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과 재해, 방법 등 안전성 항목에서 가구주와 주부의 만족정도가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은 성별에 따른 거주환경 요소들의 만족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만족수준이 전반적으로 일치된 가운데 여성의 만족도가 다소 우세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만족수준은 대부분 만족과 보통사이에 걸쳐 있으며 이중 거주지 접근성, 공공시설 연계성, 상업시설 연계성,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 재해, 방법 등 안전성 항목에서 남성의 불만족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요소에서 남녀간 만족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이들 항목중 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것으로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과 재해, 방법 등 안전성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만족정도가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항목에서 여성의 만족정도가 보다 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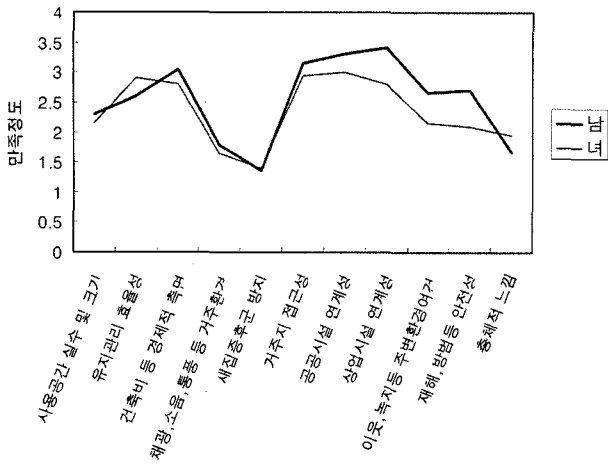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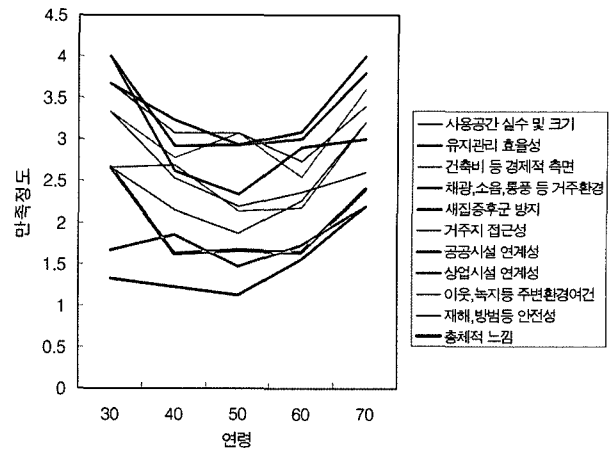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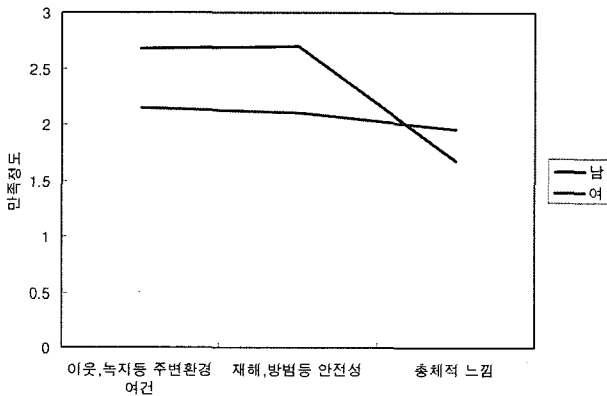


그림 12. 성별에 따른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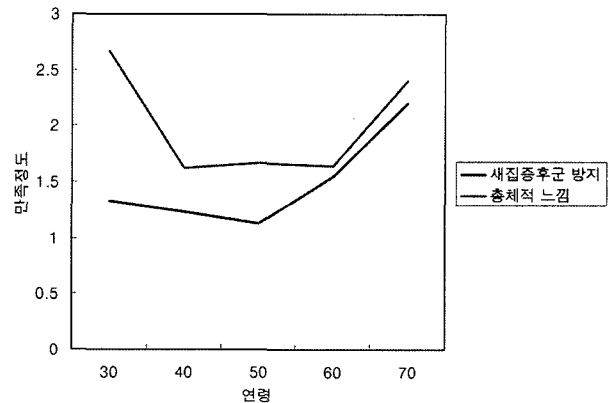


그림 14.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비교

대한 총체적 느낌은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3>은 연령에 따른 주거환경 요소들의 만족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연령과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만족수준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30대와 70대의 만족수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이들 항목중 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것으로 새집증후군 방지에 대한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한 총체적 느낌은 30대의 만족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연령대에서 거의 일치된 만족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5>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 요소들의 만족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정도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모든 항목에서 0.05 수준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득수준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6>은 거주기간에 따른 주거환경 요소들의 만족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4-5년의 거주기간에 이르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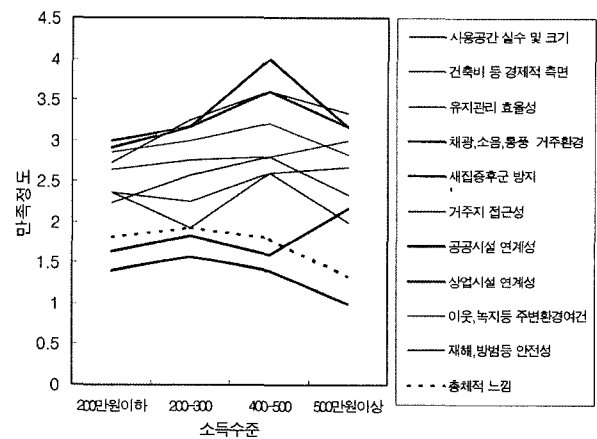


그림 15. 소득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분포

주자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3년의 거주기간에 이르는 거주자와 만족수준의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7>은 이들 항목중 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것으로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과 재해, 방범 등 안전성 측면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들 항목에 대해 2-3년 거주기간에 이르는 거주자의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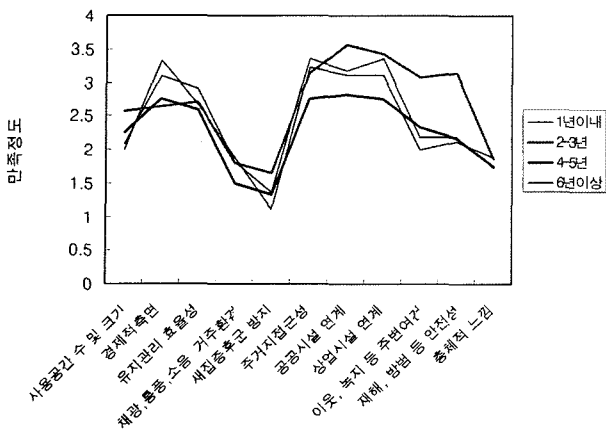


그림 16.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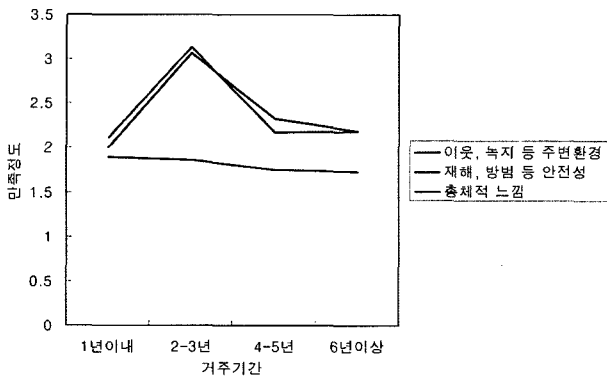


그림 17.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환경 만족도의 비교

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주기간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총체적 느낌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수준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V. 결 론

90년대 이후에 건축된 흙주거 거주자들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흙주거 거주자들의 거주특성을 밝히고 주거환경에 대한 이들의 개별속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였다. 현대화된 흙주거 계획을 위한 초기 연구로서 이제까지 파악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흙주거 거주자들의 거주특성은 95.7%에 이르는 높은 자가소유의 비율을 보이며, 현 주거의 거주기간은 5년 이내의 비율이 85%,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약53%에 이르고, 70%에 이르는 거주자가 1회 이내의 이사경험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조사대상 흙주거 가구주를 조사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은 40-60대(83%)가 주를 이루며, 직업은 농업(23.4%), 퇴직자(25.5%), 자영업(17%) 등 자유직종의 비율이 약70%에 이르며, 약72%의 가구주들이 3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흙주거 정착동기는 새집증후군

등 건강상의 이유, 단지분위기 등 주변환경때문에, 채광, 통풍, 환기 등 거주환경 순으로 나타났고, 정주요인으로 는 거주환경, 건강상의 이유, 주변환경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타 거주지로의 이전 요인으로는 접근성 등 교통여건, 교육시설의 이용, 의료시설의 이용 순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거주환경 요소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개별속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구주보다 주부들의 만족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여건과 재해, 방범 등 안전성 측면에서 주부들의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는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만족수준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30대와 70대의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4-5년의 거주기간에 이르는 거주자의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주거지 접근성, 공공시설 연계, 상업시설 연계,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 재해, 방범 등 안전성 측면에서 2-3년의 거주기간에 이르는 거주자들의 불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 파악된 거주특성과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 분석 결과 새집증후군 등 건강상의 이유, 채광, 통풍, 환기 등 거주환경,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관련 요소가 흙주거 거주자들의 정주의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거주지 접근성, 의료, 교육, 상업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연계, 이웃, 녹지 등 주변환경 여건, 재해, 방범 등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제까지의 흙주거 건축이 주거단지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소수의 개별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흙주거 및 주거단지의 개발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가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단지별 특성이 반영된 실증자료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1. 황혜주, 흙건축의 동향과 전망, 건축, 대한건축학회, 2003.05.
2. 정환목 외, 황토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7권 2호, 1997.10.
3. 차정만, 지속가능한 건축재료의 개발과 흙, 건축 v.47 n.12, 2003.12.
4. 박정식 외, 흙건축의 생태적 의미와 현대적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권 2호, 2000.10.
5. 전우문화사, 황토집, 2004.
6. 주택문화사, 황토 및 조적주택, 2004.
7. 윤원태, 황토집 따라가기, 전우문화사.

(接受: 2005. 10. 28)